

“산업전문간호사”가 우리 곁에

한양대 간호학과 (대한산업보건협회 간호분야 부회장) 정 문 희

바야흐로 ‘산업전문간호사’란 이름으로 간호사의 업무수행이 더욱 보람 있고 한껏 명예로울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간호의 실무 6분야(산업, 감염관리,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가 기존의 4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에 추가되어 10개 전문간호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에서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 간호학과와 간호대학, 간호학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2003. 11. 27. 전문간호사과정 교육기관을 지정·발표하였다. 산업전문간호사는 서울소재의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과 대전소재의 순천향대학교 특수대학원 2곳에서 각각 5명씩을 지정받아 교육하므로, 머지않아 우리 곁에 최대 10명이 처음 등장한다.

산업보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교육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라든가 종합병원 간호사 등이 그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원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산업보건업무에 실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어야 한다.

1. 사업장의 의무실·건강관리실, 사업장의 부속의료기관
2.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3. 노동부가 지정하는 산업보건관련기관·한국

산업안전공단·대한산업보건협회·한국노동연구원·노동건강연구소·한국산업간호협회 교육받는 사람은 2년여에 걸쳐 공통과목과 전공과목을 합하여 총 3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공통과목이란 앞서 언급한 10개 분야에 모두 해당되는데, 이는 각각 간호이론(3학점), 간호연구(3학점),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3학점), 상급건강사정 이론(2학점)과 실습(1학점), 약리(2학점), 병태생리(2학점)이다. 전공과목은 전공이론과 전공실습으로 나뉘어서 각각 1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산업간호특론’, ‘직업병 예방과 관리’, ‘통상질환의 예방과 관리’, ‘작업환경과 작업관리’, ‘사업장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한국산업간호협회에서 표준화한 것에 근거를 둔다.

교육을 완료한 후에는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하지만, 수료나 석사학위 취득이 곧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취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후 1년 이내에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해야만 진정한 한 사람의 산업전문간호사로 탄생한다. 이 때 시험 등을 관장하는 곳은 한국간호평가원이 될 것이다. 국가자격이 아닌 이러한 민간자격 인증제도는 자율적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정책방향이며, 일련의 시대적 사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하튼 이 분야 관계자 모두의 열렬한 후원 속

에 '산업전문간호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의견을 건넨다.

첫째, 활동분야에 대한 수요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1) 산업전문간호사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충분히 홍보하였으면 한다. 사업장 경영진 등의 인식이 높아지면 이들에 대한 우대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용 및 승진·승급 시에, 연수기회가 올 때, 부서이동시에 우선 고려라든가, 자격수당의 지급 등이다.

2) 산업전문간호사 제도가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충분히 대응하였으면 한다. 최근 6개월간 간협신보의 광고란에서 관찰되는 구인·구직은 이미 상당수 배출된 가정 또는 정신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도 각각 단 한 건씩 밖에 없었다. 이는 잠재요구와 실제수요간 괴리가 엄청나게 큼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산업전문간호사 측면에서도 이 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근본취지를 오용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검증해 보았으면 한다. 일부 3차 진료기관에서 속칭 임상전문간호사에게 마치 수련의와 같은 역할수행이 주어지고 간호사들도 무심코 이를 수용하고 있는 예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명료하고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1) 명료한 역할 인식이 직무만족을 가져오고 직무만족이 업무수행의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보고에 비추어 애매모호한 직무는 없었으면 한다. 이는 산업전문간호사의 정체성 자각과 자기개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2) 사업장 건강관리는 학제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내는 산물임을 유념하였으면 한다. 독보적인 전문성과 장래 활동에 대한 전망은 든든하게 구축된 사회적 지지망 속에서 더욱 선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인증기관은 공신력을 가지고 엄정하기를 기대한다.

1) 자격시험 등의 관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탄력적으로 따라갈 수 있었으면 한다.

2) 자격의 유지와 관리는 자기개발을 위한 유인으로 연결했으면 한다. 대한간호협회 산하에 8개 간호사회와 각 시도별 지부, 각 의료기관이나, 각종 협회 및 학회·대학 연구소 등에서 실시하는 간호관련 또는 비간호관련 교육이나 자격증과 상호연계 또는 전문성 인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기관은 편협하지 않은 열린 마음으로 지정되기를 바란다.

1) 산·학·연 통합교육과 연구에 소신껏 임하고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교는 전국에 7개교 내외에 불과하므로 사심 없이 이들을 동참시켰으면 한다. 산업전문간호사에 대한 꿈은 원초적으로 학부생부터 키워야 한다. 교과과정에서 '산업간호'를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연계 개설하고, 강의뿐만 아니라 실습과 연구에 의해 포괄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서울소재 대학의 지정은 더 늘렸으면 싶다. 한국산업간호협회(2002)에서 추계하고 있는 1400여명 내외의 교육대상자는 경인지역에 약 40% 정도가 근무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등소이 하므로, 이는 권역별 안배상 오히려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맺음에 앞서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누군가의 언급이 떠오른다. 대외적으로는 WTO 등 의료서비스의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격자의 배출이 요구된다. 대내적으로는 백화점이나 우체국 이용처럼 소비자 편의에 선, '존경받는 산업전문간호사'가 우리 곁에 함께하기를 진정 고대한다. 